

## 한영번역 시 코퍼스 기반 의미운율 교육의 필요성\*

마 승 혜  
(한국외대)

### 1. 들어가는 말

국내 한 학부 영어통번역학과에서 통번역관련 수업을 수강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동기와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통번역 수업을 듣는 주된 목적으로 영어실력 향상을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선행연구(조성은 2007, 남원준 2009)에서 조사된 바 있고, 기존 조사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었던 설문조사였다. 그러나 통번역관련 수업이 학생들의 필요만을 존중하여 언어교육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본래 통번역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학습자의 필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통번역 수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Kelly 2005)<sup>1)</sup>.

\* 본 논문은 2014 한국번역학회 가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학생들의) 필요 분석 또는 초기 진단은 어떠한 수준의 교육에서건 교과과정 구성 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The process is known as needs analysis or initial diagnosis and is essential to any curricular planning process at any level).” (Kelly,

물론, 수업 중 통번역 실습과 언어실력 향상이 별개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번역 실습이 자연스레 언어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통번역과 관련된 특정 개념을 일깨워주고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는 언어실력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나은 통번역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실력 향상 및 실제 통번역의 질 향상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 및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의미운율(semantic prosody)’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해보고자 한다. 제2언어(B언어) 습득에 관한 “결정적 시기 가설(Critical Period Hypothesis, CPH)” (Lenneberg 1967, Scovel 1988, Cook 1991, Singleton 1992, Singleton & Lengyel 1995, Bialystok 1997)에 따르면 소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지나 학습을 통해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원어민과 같은 언어적 직관(intuition)을 갖기는 힘들다고 하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인용 및 주창되어 왔다. 그리고 영어를 B언어로 학습해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번역 수업을 통해 이 부족한 언어적 직관 부분을 보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sup>3)</sup>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결정적 시기가 지나 B언어를 학습한 경우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원어민으로서의 취약점 중 주요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비원어민의 작문에서는 언어 오류(collocation errors)와 관용구 부재(absence of idiomatic phrasing)가 두드러진다”(Pokorn 2005: 13)는 것이다.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문맥 내 의미적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의미적 운율이 훼손되어 번역 시 느낌 및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 의미운율의 주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의미적으로 운율에 맞게 번역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번역 시 의미운율 일관성 여부가 독자 수용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2005: 43)

- 2) “많은 학생들, 특히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습득한 기술들을 모국어로 그리고 타언어로 번역 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Many students, particularly of less widely spoken languages, have to train to become translators in this kind of linguistic environment, transferring the skills acquired to translation practice into and out of their real A languages)” (ibid.: 73-74).
- 3) 구체적인 학생 현황 조사는 ‘3. 학부학생 현황 조사’ 참조.

리고 의미운을 개념 인지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학생들은 어떻게 의미운을 학습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의미운(Semantic Prosody)

### 2.1 의미운 개념

의미운은 코스 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외국어 교육 및 학습에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의미운을 알지 못해 적절치 않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ESL/EFL 학습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발생”(Wei 2006, Xiao & McEnery 2006, Zhang 2009: 1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의미운에 대해서는 싱클레어(Sinclair 1987)가 처음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단어 및 구(phrases)는 특정 의미환경(semantic environment)에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Sinclair 1991: 112)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use’이라는 단어는 습관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Smoking can cause lung cancer(흡연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어 자체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운을 내포할 수도 있지만,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구(phrase) 또는 절(clause)도 의미운을 가진다. ‘par for the course’라는 표현은 ‘당연한, 보통의, 빈번히 일어나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운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Channell 2000). 따라서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실제로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면 “Delays at airports in the holiday season are par for the course(휴가철에 공항에서 지연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Zhang 2009: 4, 필자강조)를 들 수 있다.

특정 표현들의 의미운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의미운을 지닌 표현이 좀 더 많고, 긍정적 또는 중립적 운을 지닌 표현들은 비교적 적게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특정 영어 표현의 의미운율

연구자 (Researcher)	의미운율		
	부정적(Negative)	긍정적(Positive)	중립적(Neutral)
Channell (2000)	<i>par for the course</i> <i>roam the streets</i>		
Hunston (2002)	<i>sit through</i>		
Louw (1993)	<i>bent on</i> <i>build up</i> (intransitive) <i>utterly</i> <i>symptomatic of</i>	<i>build up</i> (transitive)	
Partington (1998)	<i>commit</i> <i>peddle</i> <i>dealings</i>		
Sinclair (1987, 1991)	<i>break out</i> <i>happen</i> <i>set in</i>		
Stubbs (1995)	<i>break out</i> <i>cause</i> <i>effects</i> <i>happen</i>	<i>reason</i> <i>provide</i>	<i>create</i> <i>effect</i>
Wei (2002)	<i>cause</i> <i>incur</i> <i>utterly</i>	<i>career</i>	<i>probability</i>

(Zhang 2009: 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단어 및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운율 관련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환경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그중 앞서 언급한 ‘cause’에 대한 의미환경을 코퍼스 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미국영어코퍼스(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sup>4)</sup> 조사 결과, 총 57,434건이 검색되었고, 처음 등장한 100건의 예문 중

4) 특정 영어 단어 및 표현의 의미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코퍼스는 현대미국영어코퍼스(COCA)이다. “현대미국영어코퍼스는 4억5천만 단어의 코퍼스를 보유한 현재 최대 미국영어 코퍼스이고, 누구나 미국영어에 관해 검색해볼 수 있는

‘~을 야기하다’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을 간추리고 그 예문들의 의미환경을 살펴보니 단 1건만 중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고<sup>5)</sup>, 그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sup>6)</sup>.

위의 (표 1)에서 로우(Louw 1993)와 웨이(Wei 2002)는 ‘utterly’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분류하고 있다. ‘utterly’를 코퍼스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619건이 검색되었고, 처음 100건의 의미환경을 살펴보니 “She's utterly depressed(그녀는 완전히 우울해 한다)”(COCA)와 같이 80%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13%는 긍정적인 맥락<sup>7)</sup>, 7%는 중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단어 및 표현의 의미운율에 대해서는 영어권에서 주로 연구 및 조사되어 왔고, 영어 표현 위주로 분석되어 왔지만, 타 언어와 비교하는 연구 및 번역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Berber-Sardinha 2000, Xiao and McEnery 2006). 뿐만 아니라, 번역 시 의미적으로 일관되도록, 즉 운율을 유지하여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감정 및 느낌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마승혜 2014)를 통해 입증되었다.

## 2.2 번역 시 의미운율이 중요한 이유

상당수의 단어 및 표현들은 특정 의미환경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impressive’는 ‘achievement,’ ‘talent,’ 또는 ‘gains’와 같이 긍정적 의미를 내포

---

유일한 코퍼스이며, 다양한 장르에서 가져온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Corpus\\_of\\_Contemporary\\_American\\_English](http://en.wikipedia.org/wiki/Corpus_of_Contemporary_American_English))

그 외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주도하여 제작한 말뭉치인 British National Corpus(BNC, 1억 단어 보유) 및 캐나다의 Starthy Corpus(5천만 단어 보유) 등이 있다.

- 5) “This mechanism is so sensitive that minute quantities of the allergen can **cause** a reaction.”(COCA)
- 6) “It lacks precision so may **cause** needless worry or false reassuranc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could also **cause** emotional distress.”(COCA)
- 7) ‘utterly’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예문은 “He was **utterly** gorgeous and he looked thoroughly... bad.”(COCA)와 같이 다소 냉소적인 어투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Louw(1993)는 반어법(irony)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미운율을 위반하여 의미운율적으로 상충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고 있는 단어들과 주로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운율을 구성하는 단어로 조사된 바 있다(Partington 1998). 그러므로 ‘It is an impressive achievement(그것은 인상적인 성과이다)’와 같이 긍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되어야 의미운율이 유지되는 것인데, ‘It is an impressive crime(그것은 인상적인 범죄이다)’라고 할 경우,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단어 간 의미운율이 상충되어 어색한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다. 단어 및 표현들의 의미운율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 헌스톤(Hunston 2007)은 “(이러한 현상이) 비 원어민의 말하거나 쓰기가 왜 원어민에게는 오히려 웃음을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Hunston 2007: 259)고 설명하고, 그리고 장(Zhang 2010)은 “의미운율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화자/저자의 태도, 평가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Zhang 2010: 191)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작품의 영역본을 세분화하여 인바운드 번역과 아웃바운드 번역<sup>8)</sup>으로 나누고 그 차이를 의미운율 중심으로 살펴본 마승혜(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문학작품 영역 시 영어가 모국어인 원어민 번역가, 즉 인바운드 번역가에 비해 한국어가 모국어인 아웃바운드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한 경우 연어 사용이 잘못된 경우가 좀 더 빈번하게 등장하고, 의미운율의 일관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라 언어적 직관을 바탕으로 파악되는 의미운율이 아웃바운드 번역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었고 분석결과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의미적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어민 독자 수용도를 살펴본 설문조사에서도 원어민독자들은 인바운드 번역을 좀 더 선호하고 감정 전달이 더 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로 인바운드 번역이 ‘감정 및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고 생기있게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

8)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인바운드 번역’, 모국어에서 나와 B언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아웃바운드 번역’이라고 한다. ‘인바운드 번역가’와 ‘아웃바운드 번역가’라는 용어는 번역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번역가, 내국인 번역가, 원어민 번역가, 비원어민 번역가, 네이티브 번역가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는 상황에서 용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연구에서 차용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Song(1975), An S njac(1997), King(2003), Fulton(2008), 마승혜(2014)의 논문 및 발표자료에서 사용되었다.

다. 반면 아웃바운드 번역에 대해서는 ‘다소 딱딱하고, 묘사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영 번역에서, 특히 문학 번역과 같이 긍정적/부정적 감정 전달이 잘 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긍정성/부정성이 의미적으로 일관되게 전달되지 못하면 독자들은 감정의 강도 및 느낌을 온전하게 전달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번역작품의 독자수용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자.

### 2.3 번역 시 의미운율이 어긋난 경우와 독자 수용성에의 영향

번역 시 의미운율의 차이가 독자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데 마승혜(2014)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한국문학 작품의 여러 영역본 중에서 인바운드 번역본과 아웃바운드 번역본을 분류하고 어느 번역가군의 번역에서 의미운율적 일관성이 지켜지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세 개의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여섯 개의 번역본을 상세히 조사해 본 결과, 원어민 번역가에 해당하는 인바운드 번역이 의미운율적 일관성이 더 잘 유지되고 있고, 한국인 번역가에 해당하는 아웃바운드 번역에서는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중 한 번역의 일부를 발췌하여 코퍼스 조사를 통해 의미운율의 일관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원문은 김동리의 『무녀도』에서 발췌한 부분이고 번역본은 이 부분에 대한 아웃바운드 번역본으로 분류된 *Picture of a Sorceress*의 일부이다.

(ST)

이 마을 한구석에 모화(毛火)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화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화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1)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목은 기와집으로, 지붕 위에는 (2)기와머섯이 퍼렇게 뻗어올라 (3)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주위는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리인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의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고이는 대로 (4)일년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문힐 만큼 (5)거뭇게 엉키어 있었다. (pp. 15-16)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TT)

In one corner of this village lived a sorceress called Mo-wha-she had acquired this name because she was said to have come from Mo-wha.

(1)It was an old house with a traditional tiled roof, crumbling at one corner, and (2)the tiles on the roof were green with fungus, (3)giving out a strong earthy smell. A decayed stone wall, with gaps here and there, surrounded it crookedly like the remains of an ancient castle. Inside the wall, in the large yard, like an empty field, the drains had been blocked for years, and rain water had gathered, so that (4)all through the year it was covered with a greenish fungus, out of which grew weeds such as neuljangi, myongaju, kangaki, and many other nameless kinds, (5)tangled in a dark green mass as tall as a man. (pp.192-193)

『무녀도』에서 발췌한 부분은 주인공 모화가 살고 있는 집, 즉 장소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다. 모화는 새로운 서양문물이 전통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치열하게 거부하는 무녀로서 모화의 단힌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집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다. 굉장히 암울하고 역하기까지한 장소로 묘사되고 있고 부정적 맥락이 유지되는 부분이므로, 번역 시 부정적 의미운율을 유지하며 번역할 필요가 있다. 장소에 대해 부정적 묘사로 일관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 추출한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은 총 5개이다<sup>9)</sup>. 이 5개의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들이 부정적 의미환경에 맞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즉, 부정적 의미운율을 유지하여 번역하였는지 각각 코퍼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1)

(ST1)

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묵은 기와집

(TT1)

It was an old house with a traditional tiled roof, crumbling at one corner,

9) 모화가 사는 집에 관해 묘사한 표현 분석 부분은 마승혜(2014) 박사논문 데이터 분석 시 사용한 데이터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발전시킨 것임



모화가 사는 집에 대한 묘사이다. ‘찌그러져가는 묵은 기와집’이라고 묘사하며 부정적이고 암울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번역에서는 ‘an old house with a traditional tiled roof’라고 번역하고 있다. ‘traditional’을 코퍼스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검색된 사용례가 거의 5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집을 묘사하는 맥락인 ‘traditional house’로 범주를 좁혀 검색해보니 22건으로 좁혀졌다. 그런데 이 22건 중 암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경우는 1건(4%)밖에 없고 주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전통적인 가옥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10)</sup>. 16건(73%)은 중립적인 의미로, 5건(23%)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traditional’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전통적’이라는 중립적 또는 긍정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찌그러져 가는 낡은 기와집’이라는 부정적 의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의미운율이 맞지 않는다.

2)

(ST1)

기와버섯이 퍼렇게 뻗어올라

(TT1)

The tiles on the roof were green with fungus,

모화가 사는 낡은 집의 암울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지붕위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원문에서 사용한 ‘퍼렇다’는 단어의 표준국어대사전 상 의미는 “다소 탁하고 어둡게 푸르다”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번역에서는 ‘gre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green’은 단어 자체적으로도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green with’의 실제 사용례를 코퍼스

10) “A big, traditional house nestled in the hills. Parents and graduating students exchange polite conversation in the yard”,  
 “The Wilners moved to a more traditional house in Wesley Heights. ‘It’s very nice””,  
 “we were able to reinvent ourselves outside the spatial hierarchies of the traditional house.” (COCA)

상에서 검색해 보아도 대부분 중립적인 의미에서 푸른색을 묘사하고 있거나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sup>11)</sup>. ‘green with envy’에 ‘~에 대해 질투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green with’가 감정을 묘사하는 맥락이 아닌 원문과 같이 사물 및 환경을 묘사하는 맥락의 표현으로 범위를 좁혀서 조사해 보았다. 처음 등장한 100개의 예문 중 골프, 사람 및 지명, 감정표현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을 제외해보니 총 50건이 남았고, 그중 27건은 중립적인 맥락에서, 23건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원문의 ‘퍼렇다’에 내포된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 시 ‘dirty’, ‘fouled’, 또는 ‘scummy’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더하여 부정적 의미를 유지하였다면 그 느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겠지만, 위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는 부정성을 더해주는 형용사는 없기 때문에 원래 ‘green with’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볼 때 번역 시 부정적 의미운율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게 된다.

3)

(ST1)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TT1)

Giving out a strong earthy smell.

모화가 사는 낡은 집 지붕의 냄새를 묘사하고 있다. ‘역하다’라고 표현하며 부정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번역에서는 ‘strong earthy smell’이라고 표현하였는데, ‘earthy smell’의 코퍼스 상 사용례를 살펴보면, 총 36건 검색되었는데,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는 4건(11%)밖에 없었고, 부정적 맥락보다는 ‘숲 속의 흙냄새’와 같이 자연의 냄새 자체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맥락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89%)<sup>12)</sup> 역하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맥락

11) “..paddy fields that at this time of year should be vivid green with a fresh crop”

“The ground below was green with new spring growth”,

“They were a gorgeous deep green with hues of blue” (COCA)

12) “Ipa loved the earthy smell of red potter’s clay and took great pleasure in shaping bowls and vessels”,

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뿐만 아니라 냄새를 풍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구동사(phrasal verb)를 검색해보면, 번역 시 사용된 ‘give out’ 보다는 ‘give off’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코스 상 확인할 수 있었다<sup>13)</sup>.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 및 언어 사용으로 인해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의미가 일관성 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4)

(ST1)

일년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TT1)

All through the year it was covered with a greenish fungus

모화의 집 마당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고, ‘시퍼렇다’라는 색깔 형용사를 사용해 암울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퍼렇다’는 ‘파랗다’와 달리 부정적 느낌을 전달한다. 국어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 때문이다. ‘ㅏ, ㅑ, ㅓ, ㅕ’와 같은 양성모음은 밝고 산뜻한 느낌을 전달하지만, ‘ㅜ, ㅠ, ㅡ, ㅟ’와 같은 음성모음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팔짝팔짝’과 ‘펼쩍펼쩍’의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 게다가 원문에서는 ‘시퍼렇다’라고 하며 어두운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번역에서는 다시 ‘green’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을 묘사할 때 ‘greenish’가 사용된 코퍼스를 조사해보면 “Among other botanical jewels is an orchid with small **greenish** white flowers(식물에서 보석 중 하나는 작고 푸른빛의 흰 꽃이 있는

“In Beldan in the spring, there was a ripe, **earthy smell** that rose with the morning mist off the Hiring Fields after the last frost”,

“creek beside the cabin was roaring from the spring rains. There was a damp **earthy smell** from the woods.” (COCA)

13) “..both of which **give off** a scent that's unappealing to felines”,

“still fresh enough to **give off** a strong scent that made my mouth water”,

“The piles of rubble still **give off** a strong stink of gas enabling the neighbors to determine...” (COCA)

난초이다)(COCA)에서처럼 ‘jewels’와 같이 긍정적 의미운율을 내포한 단어와 함께 밝고 긍정적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고<sup>14)</sup>, “we could see the dirty, **greenish**, muddy-looking water(우리는 더럽고, 퍼런, 진흙탕 물을 볼 수 있었다)(COCA)와 같이 ‘dirty’, ‘muddy’와 같은 부정적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부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sup>15)</sup>. 즉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운율이 결정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일관해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번역 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는 없이 ‘greenish’만 사용하여 부정적인 의미운율이 정확하게 유지되지는 않고 있다.

5)

(ST1)

거뿔게 엉키어 있었다

(TT1)

Tangled in a dark green mass

모화의 집 마당에 여러 잡풀들이 거뿔게 엉키어 있었다고 묘사하며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에서는 다시 한 번 ‘green’을 사용하여 ‘거뿔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색깔형용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dark green’을 사용하고 있지만, ‘dark green’ 또한 코퍼스 상 실제 사용례를 살펴보면 총 898건이 검색되었는데 그중 처음 등장하는 100건의 예문을 살펴보면, “A big guy, with red cheeks and **dark green** eyes(불그스름한 뺨과 짙은 푸른 눈의 큰 남자)(COCA) 또는 “...looks like white flowers on a low mat of **dark green** leaves in spring(봄철 짙은 푸른색의 나뭇잎들 위에 핀 하얀색 꽃들

- 14) “**Greenish** daylight filtered through the drapes, and so did the wind”,  
 “pick roots with a good button of **greenish** leaf stem on top”,  
 “the gem in the ring on his pinky sparkled in the **greenish** glow from the control board”(COCA)
- 15) “The kitchen sink was full nearly to the brim with filthy **greenish** water which smelt worse than ever of cabbage”,  
 “they see tendrils of an eerie **greenish** fog”,  
 “The orb was sickly **greenish**. It withered.”(COCA)

같이 보이는”(COCA)과 같이 98건이 객관적인 색깔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2건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green’을 사용하여 ‘거뭇다’는 부정적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코퍼스 상에서 검색된 ‘dirty green’이 좀 더 적합할 것이다.

위의 분석이 코퍼스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원어민 독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설문조사 참여자 총 38명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번역과 아웃바운드 번역 중 독자로서 어느 번역이 좀 더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sup>16)</sup> 28명(74%)은 인바운드 번역을 택하였고, 6명(16%)은 아웃바운드 번역을 택하였으며, 4명(10%)은 두 번역이 비슷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의미운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두 번역 중 인바운드 번역은 의미운이 좀 더 일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웃바운드 번역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미운적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두 번역에 대한 원어민 독자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바운드 번역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묘사하는(graphically describing)”, “선명한(vivid)”, “감정을 자극하는(emotive)”, 또는 “묘사적인(descriptive)” 번역이라고 설명한 반면, 아웃바운드 번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진술하는 듯한(more statements)”, “다소 딱딱한(a little bit rigid)”, 또는 “생생함이 부족한(less vivid)” 번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번역 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 작품에서도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마승혜(2014)의 논문을 보면 세 작품 전체에서 긍정적/부정적 감정 및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표현들을 모두 추출하여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번역 시 의미적 일관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상충될 경우 최종적으로 독자 수용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앞서 언급된 선행 연구 및 조사를 기반으로 한영번역 시 의미운을 유지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연 통번역과목을 수강중인 학생들은 이 의미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되

16)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은 어느 번역이 인바운드 번역인지, 아웃바운드 번역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하였고, 응답 시 주의사항으로 표현들의 의미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답변하라는 설명이 제공되었음.

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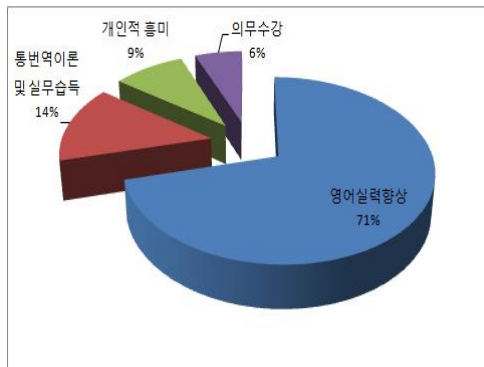
### 3. 학부학생 현황 조사

#### 3.1 통번역 수업 수강 목적 및 학생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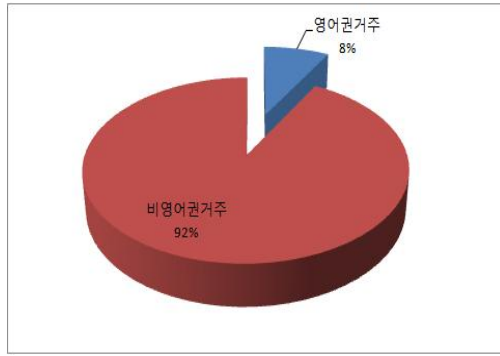
현재 학부 통번역 수업을 듣는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통번역 수업 수강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 71%(46명)의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4%(9명)는 통번역 관련 이론 및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답하였고, 9%(6명)는 개인적으로 통번역에 흥미를 느껴서, 나머지 6%(4명)는 졸업하려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해서라고 답하였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통번역관련 수업을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큰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해외거주 경험 여부를 조사해보니 사춘기 무렵 이전에 3년 이상 영어권에서 거주하여 영어를 비교적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65명 중 8%(5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1〉 학부 통번역 수업 수강 목적



〈그림 2〉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은 직관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파악되었고, 이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학생들의 영어 구사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사춘기무렵 이전’에 영어권 거주 경험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한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결정적 시기 가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3.2 원어민/비원어민 학생 구분 기준인 ‘결정적 시기 가설’

제2외국어 습득과 관련해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많은 주장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소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라고 칭하는 사춘기 이전 무렵에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능숙한 언어구사력(proficiency)을 갖추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Lenneberg 1967, Scovel 1988, Cook 1991, Singleton 1992, Singleton & Lengyel 1995, Bialystok 1997). 그래서 이를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 칭한다.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교수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학습 시기와 관련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각 분야별로 최적의 학습의 시기 즉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영어 조기교육의 주장에 대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촘스키(Chomsky)(1969: 20)의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 이론과 신경학적인 기반을 둔 언어학자인 렌네베르그(Lenneberg)(1967: 175-176)가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에서 밝힌 결정적 시기 가설 (Critical Period Hypothesis)이다.”(심순희 2005: 216)

물론, 이 가설이 완전하게 입증되어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sup>17)</sup>,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된다면 원어민과 같은 언어적 직관(native-like intuitions for the language)을 개발하기는 힘들다”(Pokorn 2005: 14)라고 설명하며 결정적 시기 가설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결정적 시기 이후 학습을 통해 언어를 배우면 원어민과 같은 직관을 갖기는 힘들고, 결국 비원어민으로서는 사용한 표현들의 언어 관계(collocational)가 맞는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운율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학생 프로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정적 시기 이후 학습을 통해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원어민과 같은 직관은 부족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에서 부정적 의미환경 하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 및 구(phrase)라고 조사된 표현들을 위주로 의미운율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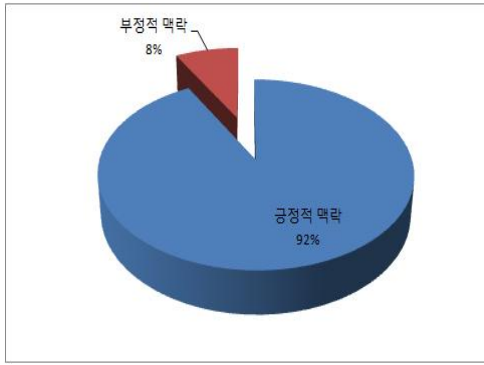
### 3.3 의미운율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정도

우선, 스티브스(Stubbs 1995)와 웨이(Wei 2002)의 연구에서 부정적 의미환경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조사된 단어 ‘cause’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1 의미운율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cause’는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대부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만큼 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cause’를 이용하여 영작을 한 경우 대부분 부정적 의미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총 65명의 학생 중 60명(92%)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5명(8%)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17) 브라운(Brown 1980: 203-205)은 성인들의 언어습득이 어린이 보다 불리한 것이 인지적 혹은 정의적 변인들의 간섭현상(intervening cognitive or affective variables) 때문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요인만 제거되고 높은 동기(motivation)만 유지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외국어 습득을 이룩할 수 있다”(ibid.: 219)는 것이다.



〈그림 3〉 학생 영작 시 'cause'가 사용된 의미환경



두 맥락에서 사용된 학생 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

〈표1〉 'cause'를 사용한 학생 예문

'cause'	학생 예문
부정적 의미환경	“The problem was <u>caused</u> by her” “The explosion of diabetes is <u>caused</u> by obesity” “Careless behaviors <u>caused</u> the students to die”
긍정적 의미환경	“The class <u>caused</u> me to study hard” “Today, my achievement will <u>cause</u> better success” “My ability is <u>caused</u> by my hard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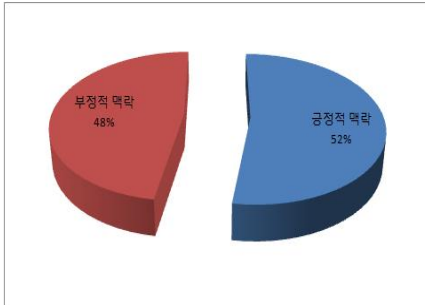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의미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cause'를 긍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하니 의미운율이 맞지 않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use'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학생들도 자주 접해본 단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환경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 'cause'에 비해서는 그리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고, 학생들이 비교적 자주 접해보지 않은 표현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의미환경을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로우(Louw 1993)와 웨이(Wei 2002)의 연구에서 주로 부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된다고 조사된 ‘utterly’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표현은 아니지만, 부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진 ‘on the receiving end’<sup>18)</sup>라는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운용 인지 상태를 조사해보았다<sup>19)</sup>.

‘utterly’는 부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되어야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34명(52%)의 학생들이 긍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4〉 학생 영작 시 ‘utterly’가 사용된 의미환경



두 맥락에서 사용된 학생 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

〈표2〉 ‘utterly’를 사용한 학생 예문

‘utterly’	학생 예문
부정적 의미환경	“It is <u>utterly</u> unfair”
	“That’s <u>utterly</u> absurd”
	“The problem was <u>utterly</u> out of control”
긍정적 의미환경	“That thing is <u>utterly</u> splendor”
	“This is <u>utterly</u> awesome!”
	“I am <u>utterly</u> satisfied with my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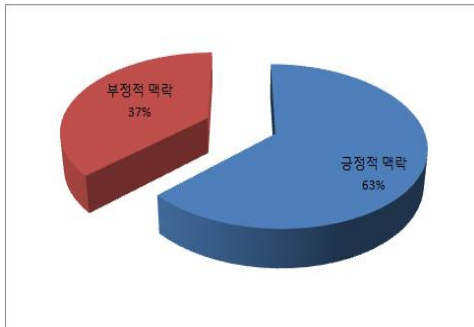
18) "receiving end is the position in which one is subject to an often unpleasant action or effect(“받는 쪽”이란 종종 불쾌한 행동이나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00)

19) 코퍼스에 등장한 ‘cause’의 검색건수는 57434건인데 반해 ‘utterly’는 4619건, ‘on the receiving end’는 356건 검색되었다.

학생들은 영작 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표시하도록 요구되었고, 긍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한 ‘utterly’ 예문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sup>20)</sup>, 원어민의 입장에서 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utterly’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on the receiving end’를 포함한 학생 예문을 살펴보자. 코스 상 총 356건 검색되었고, 그중 처음 등장한 100건의 예문 중 72건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코스 상 예문으로는 “Those same authorities are on the receiving end of anger from the public(그 동일한 당국은 대중의 분노를 받는 처지에 있다)”(COCA)와 같은 문장이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41명(63%)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여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5〉 학생 영작 시 ‘on the receiving end’가 사용된 의미환경



두 맥락에서 사용된 학생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문법적으로 바른 표현은 ‘utterly splendid’이다.

〈표3〉 ‘on the receiving end’를 사용한 학생 예문

	학생 예문
부정적 의미환경	“She is <u>on the receiving end</u> of the blame”
	“Korean citizens are <u>on the receiving end</u> of bad news”
	“He was <u>on the receiving end</u> of the criticism”
긍정적 의미환경	“Children are <u>on the receiving end</u> of their parents’ love”
	“The singer is <u>on the receiving end</u> of fans’ love and presents”
	“Most of students are <u>on the receiving end</u> of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긍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된 ‘on the receiving end’를 포함한 학생 예문들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오류중심의 번역 평가에서는 감점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의미운율적으로 따져보았을 경우에는 ‘주로 부정적인 것을 받는 쪽’이라는 부정적 운율이 내포된 표현을 긍정적 의미환경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어민에게는 어색한 느낌이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영 번역 시 특정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적 의미 외에도 그 표현이 사용되는 의미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직관적으로 의미환경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는 코퍼스 활용을 통해 학습 및 보완 할 수 있다.

## 5. 결론

학부에서 통번역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B언어 실력이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통번역수업을 통해 비원어민으로서의 취약점을 보완해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여전히 큰 상태이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비원어민으로서 보이는 취약점 중 하나로 영작 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그로 인해 단어 및 표현들의 의미적 운율이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즉,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 및 표현을 부정적 의미환경, 즉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주로 언어적 직관에 의거하여 특정 단어 및 표현의 의미환경을 결정하는데, 한영 번역 시 이 의미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미적으로도 운율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느낌 및 감정을 전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미운율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작품의 영역

본을 비교·분석해보고 그 번역작품의 독자수용성을 조사해본 결과, 의미운울의 일관성 여부가 독자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마승혜 2014)에서 조사되었고, “의미운울 현상은 교육학(언어 교육, 번역 교육, 사전 편찬)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Stewart, 2010: 18)는 주장도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제기되었다.

특정 단어 및 표현이 지니는 의미운울 및 사용되는 의미환경을 파악하는 방법은 앞서 번역 분석 시 사용된 ‘단어 및 표현에 대한 코스 조사’를 통해서이다. “단어 및 표현의 의미운울은 그 단어 및 표현이 사용된 다수의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고”(Hunston 2002: 142) 그리고 “한 단어가 습관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코스에서 살펴봄으로써 의미운울을 파악”(Stewart 2010: 1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데이(2011)는 “번역연구자, 단일언어 코스 언어학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지면 의미운울 분석 또한 더욱 정교해 질 것이다”(Munday 2011: 183)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한영 번역 교육 시 영어표현들 간 의미운울 개념을 일깨워 주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러운 목표언어 구사 및 정확한 원문의 느낌 및 감정 전달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표현들의 의미운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이 작성한 텍스트를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번역 시 익숙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코스를 활용하여 단어 및 표현의 의미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비원어민으로서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번역의 질을 높여 독자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리 (2010) 『무녀도』, 서울: 도서출판 맑은창.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 교육에 관한 일고찰-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1): 21-51.
- 마승혜 (2014) 「문학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성향의 상관관계 연구-평가어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순희 (2005) 「EFL상황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의 적용에 대한 연구」, 『Studies

- in English Education』 10(1): 215-234.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관점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191.
- An, Sonjae (1997).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The Reality(in Korean). In *P'en kwa munhak* (Korean PEN)(42). Retrived on May. 19, 2014 from <http://www.sogang.ac.kr/~anthony/Foreign.htm>.
- Berber-Sardinha, Tony (2000) 'Semantic Prosodies in English and Portuguese: a contrastive Study.' *Cuadernos de Filologia Inglesa*, 9(1): 93-109.
- Brown, H. Douglas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hannell, Joanna (2000) 'Corpus-based analysis of evaluative lexis', in Susan Hunston and Geoff Thompson (eds)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39-55.
- Chomsky, Carol (1969)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from 5 to 10*.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ook, Vivian (1991)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New York, Sydney, Aukland: Arnold.
- Fulton, Bruce (2008) 'The 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Modern Korean Ficti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2nd International Translators' Conference*, 161-188.
- Hunston, Susan (2002) *Corpora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ston, Susan (2007) 'Semantic Prosody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2(2): 249-268.
- Kelly, Dorothy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A Guide to Reflective Practice*. Manchester: St. Jerome.
- Kim, Dong-ri (2001) 'Picture of Sorceress(Myoung-hee Hong Trans.)', in Myoung-hee Hong (ed and trans.) *Korean Short Stories*, Seoul: Il Ji SA.
- King, Ross (2003) 'Can Korea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 be Taught?

-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n Funding Agencies'. 2002 *Seoul Symposium on Literature and Translation*, 211-225.
- Lenneberg, Eric Heinz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ouw, Bill (1993) 'Irony in the text or insincerity in the writer? The diagnostic potential of semantic prosodies', in Mona Baker, Gill Francis, & Elena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157-176.
- McAlester, Gerard (1992) 'Teaching Translation into a Foreign Language: Status, Scope and Aims',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91-297.
- Munday, Jeremy (2011) 'Looming Large: A cross-linguistic analysis of semantic prosodies in Comparable reference corpora', in Alet Kruger, Kim Wallmach, and Jeremy Munday (eds)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Research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69-186.
- Olohan, Maeve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artington, Allan (1998) *Patterns and meaning: Using corpora for English language research and teach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enfield, Wilder (1953) 'A Consideration of the neurophysiological mechanisms of speech and some educational consequences', *Proceedings of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82(5): 201-13.
- Pokorn, Nike K. (2005) *Challenging the Traditional Axiom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covel, Thomas (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 *Language Learning* (19): 245-253.
- Scovel, Thomas (1988) *A Time to Speak: A Psycholinguistic Inquiry into the*

- Critical Period for Human Speech*. New York: Newsbury House.
- Sinclair, John (1987) *Looking up: An account of the COBUILD project in lexical comput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London/Glasgow: Collins.
- Sinclair, John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ingleton, David (1992) 'Second Language Instruction: The When and How', *AILA Review* (9): 46-54.
- Singleton, David & Lengyel, Zsolt (1995) *The Ag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Critical Look at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ong, Yo-in.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Steiner, George (1992)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wart, Dominic (2010) *Semantic Prosody-A Critical Evaluation*. New York: Routledge.
- Stubbs, Michael (1995)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files: On the cause of trouble with quantitative studies', *Functions of Language*, 2(1): 23-55.
- Wei, Naixing (2002) 'A corpus-driven study of semantic prosodies in specialized texts', *Modern Foreign Language* 25(2): 165-175.
- Wei, Naixing (2006) 'A corpus-based contrastive study of semantic prosodies in learner English', *Foreign Language Research* (132): 50-54.
- Xiao, Richard & McEnery, Anthony (2006) 'Collocation, Semantic prosody and near synonymy: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pplied Linguistics* 27(1): 103-129.
- Zhang, Weimin (2009) 'Semantic Prosody and ESL/EFL Vocabulary Pedagogy', *TESL Canada Journal* 26(2): 1-12.
- Zhang, Changhu (2010) 'An Overview of Corpus-based Studies of Semantic Prosody', *Asian Social Science* 6(6): 191-195.



[Abstract]

**Corpus-Based Semantic Prosody Teaching,  
Necessary to be Incorporated into Translation Courses**

Mah, Seung-hy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ccording to a brief survey on the purpose of tak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ourses, the majority of participating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hoped to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and acquire native-like competence through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practices. Given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have learned English in Korea, it is presumed that they would show non-native English speaker weaknesses in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One of the non-native English speaker weaknesses is collocational errors as it was pointed out in a previous research. Such collocation errors are led to the violation of semantic prosody in writing. It is also witnessed in the students' sentence writing with words that are known to have unfavorable or negative semantic prosody such as 'cause', 'utterly', and 'on the receiving end'. Students haven't fully developed native speaker-like intuition in determining specific semantic environment of specific words and phrases. Semantic prosody has received more attention recently as the corpus-based research has widely been adopted in translation studies. It is revealed in a data analysis, the conclusion of which could not be generalized due to the constraint in collecting data that suit the criteria set out in the research, that outbound translators in Korea who translate from Korean to English tend to show som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semantically consistent attitudes in their translations. It turns out that the violation of semantic prosody in English translation would influence the ultimate acceptance of the translation by native English speaker

readers. Semantic prosody can be best figured out by corpus search. Henc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corpus-based semantic prosody learning into translation courses, which would meet the need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ranslation class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quality enhancement of into-B translation.

▶ Key Words: semantic prosody, translation education, corpus-based analysis and learning, literary translation

마승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

shm213@gmail.com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의미운율, 문학번역, 코퍼스 연구

논문투고일: 2014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